



## [보도자료]

**GE 헬스케어, 대국민 조기진단 및 치료 중심의 '얼리헬스, 헬시코리아' 캠페인 실시  
전국 1,000 명 대상 뇌졸중 조기 진단 가능한 '경동맥 초음파' 무료 검사 제공**

GE헬스케어는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 대한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대국민 조기건강관리 캠페인 '얼리헬스 헬시코리아(Early Health, healthy Korea)'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조기진단 및 치료 중심의 얼리헬스(Early Health) 패러다임'을 활성화 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전국 1,000명의 국민에게 뇌졸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규모 조기검진 행사를 진행 했다.

GE헬스케어 김원섭사장은, "GE헬스케어의 비전은 더욱 폭넓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모델을 정착 및 활성화 하는 것으로 발병 이전 진단을 통해 질병을 막아 조기 예방하는 '얼리헬스' 모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전 세계 헬스케어 산업에서 지출의 대부분은 발병 이후 치료에 현저히 치우쳐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전되는 국가로서 급증하는 의료비용은 주요 사회·경제적 과제이며, 특히 식생활 변화에 따라 질병도 서구화되면서 암, 심혈관질환, 뇌질환 등 서구식 질병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GE헬스케어의 '얼리헬스' 모델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할 뿐 아니라 단지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한 장수를 추구하는 미래적 건강관리 패러다임이다."라고 말했다.

GE헬스케어는 이러한 '얼리헬스'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얼리헬스, 헬시 코리아" 캠페인을 진행하여, 국내에서 단일 질병으로는 사망률 1위인 '뇌졸중'에 대한 발병 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조기진단 방법인 '경동맥 초음파'검사를 영상학과 개원의 들을 통해, 전국 1,000명의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특히 뇌졸중은 높은 발병율과 더불어 사후 심각한 후유증을 남겨 환자는 물론 간병 가족의 고통도 큰 만큼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뚜렷한 조기 검진 방법을 모르고 있어 캠페인을 펼치게 되었고, 이번 캠페인에는 전국(서울, 수도권, 및 전국 6대도시, 제주도) 총 1만 373명이 응모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뇌졸중 발병 위험을 예측하기 위한 조기검진인 '경동맥 초음파'검사는 뇌졸중과 직결되는 혈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뇌졸중 위험성 여부를 가려낼 수 있으며, 검사 결과에 따라 위험군 진단을 받은 경우 MRA, CT등의 정밀검사를 통해 보다 정밀한 진단을 받게 된다.

전국 1,000명의 수혜자에게 경동맥 초음파 무료 검진을 실시한 결과 검진자 10명중 3명이 뇌졸중 위험군으로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뇌졸중 발병 위험도가 높은 것을 알게 된 만큼 사전 예방을 위한 보다 철저한 대처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 검진자 중 23.3%가 뇌졸중의 주요 원인인 동맥경화반 증상을 보였으며, 뇌졸중의 또 다른 주요 원인인 협착과 동맥경화반을 동시에 지닌 검진자도 45명 발견되어 무려 전체 검진자의 9%가 고위험군으로 진단 받아 상당수의 검진자와 그 가족들이 철저한 가슴을 쓸어 내리기도 했다.



이번 캠페인 응모대상자에게 리서치를 한 결과 “가장 두려운 질병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뇌졸중(55%)>암(27%)>심근경색(10%)>당뇨(4%)라는 응답이 나와 뇌졸중에 대한 두려움이 암의 배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료검진을 받은 수혜자의 93%는 이전에 뇌졸중 조기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해 질병 예방 및 빠른 치료를 위한 조기 검진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대다수 뇌졸중 조기 진단을 위한 ‘경동맥 초음파’검사 방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 구체적인 조기검진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자 들은 “뇌졸중 후유증을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했었는데, 뇌졸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 같은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 있는 줄 몰라 마음 고생만 했다”고 말했다. 이번 무료검진을 받은 수혜자의 100%는 경동맥 초음파 조기진단 방법을 뇌졸중에 대한 걱정으로 여전히 마음조리고 있을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겠다고 응답했다.

GE 헬스케어 김원섭 사장은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재테크를 하듯이, 장수 시대에는 얼리헬스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걸 맞는 건강 투자, 헬스테크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미 질병이 발병된 후에는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한 장수의 확률이 낮아지게 된다”며 “국민들은 조기 검진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 이러한 캠페인을 펼치게 됐으며, 조기진단 및 치료 중심의 얼리헬스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으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GE 헬스케어 리서치 조사 결과,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산업에서 70~80% 자원이 ‘발병 및 증상 이후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인구성장률은 낮은 반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연간 30%가 증가되며 이는 2030년까지 총 56조원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건강 장수는 앞으로의 화두이며 이는 개인의 행복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건강 장수와 질적 삶을 위한 얼리 헬스(Early Health)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GE 헬스케어 소개

GE 헬스케어는 혁신적인 의료 기술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새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 GE 헬스케어는 의료영상, 의료정보, 질병진단,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신약개발 및 생약 제조 기술 등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통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획기적인 방법으로 질병을 예방, 진단 및 치료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GE 헬스케어는 다양한 제품군 및 서비스를 통해 암, 심장병, 신경질환 외 기타 질병 등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질병의 조기 진단, 증상 전 질병 발견 및 질병 예방을 통해 “조기 진단 및 치료(early health)” 모델을 가능케 하고자 한다. GE 헬스케어의 본사는 영국에 있으며, 170 억불의 연간 사업 규모로 46,000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전세계 100 여 국 이상에서 의료 서비스 종사자와 환자들에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E 헬스케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www.gehealthcare.com](http://www.gehealthcare.com) 에서 볼 수 있다.



GE Healthcare

■ 보도자료 문의 :

GE 헬스케어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윤명옥 과장 (02-6201-3302/010-7370-2191/myongok.yoon@ge.com)  
홍보대행사 프레인 성상현 팀장 (02-3210-9654/016-561-3526/zzezin@prain.com)